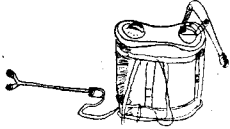


## 마택병과 콕시듐을 중심으로한 닭병의 최신 방역대책



오토·에이·웨닝거 박사

◆ 본고는 지난 6월 초순에 있었던 셰이버협회 강습회에서 있었던 오토·에이·웨닝거 박사의 강연 내용 중에서 발췌한 것으로 오토박사는 셰이버 종계회사의 수의담당관으로 온타리오대학 수의과에서 근무한 바 있으며 대학에 있는 동안 셰이버회사의 마택병대책위원으로 일한 바 있다. 본고의 번역은 서울농대의 오봉국박사님이 맡아주셨다. ....◆

우리가 현재까지 마택병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1)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 쉽게 전염된다.
- 2) 세대간에는 계란을 통한 전염은 되지 않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3~4주령시까지 약 90~92%가 감염될 정도로 높은 감염율을 나타낸다.
- 3) 감염되었다고 해서 임상학적으로 바로 죽거나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 4) 일반적으로 공기 전염이다.
- 5) 현재 실험 중인 백신을 가지고 1일령의 병아리에게 예방접종을 하면 이 질병으로 인한 임상학적 발병과 어느 정도의 폐사는 감소시킬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이 바이러스의 잠복 및 증식 전파라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한다. 즉 백신은 비효과적이다.
- 6) 이 병에 대하여 유전적으로 감수성인가에 따라 선발된 닭들 중 저항성 계통의 닭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이 병을 퍼뜨리지도 않는다.
- 7) 이 저항성의 닭을 계속 기른다면 이 병의 감염수준도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근절까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하튼 환경조건과 관리가 마택병에는 크게 영향하는데 이 병을 싸워 이기려면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1) 마택병에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로를 차단하여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할 것.

2) 이 병의 발병을 유발할 수 있는 스트레스 조건을 제거할 것.

이상의 첫째 조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① 닭을 닭장에 넣기 전에 계사는 철저히 소독과 청소를 하고 가능한 한 4~5주 적어도 3주일간은 닭장을 비만두어야 한다.

② 한 농장의 운영은 올 인·올 아웃식의 방법이 유효하다고 하며 계군의 연령차는 없이 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할 경우에는 2주령 정도의 차이는 무방하나 그 이상의 차이는 없애는 것이 좋다.

③ 병아리의 육추와 중대추의 육성은 다른 양계장으로부터 완전 격리시켜야 한다. 그리고 방문객·들새·들쥐·곤충 따위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두번째인 스트레스를 방지한다는 조건은 매우 다양하다. 그 여러 종류 스트레스를 완전히 막기는 어려울 것이나 최소한도까지 줄여서 현저한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여튼 이 병에는 예방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 [예방접종에 대하여]

오늘날 양계업은 백신이 없었으면 오늘날 같은 대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리라 말할 수 있을만큼 백신은 양계에 필요하다. 여기서 백신

의 필요성이나 형태 효력은 생략하고 단지 기관지염, 뉴캐슬, 전염병계 전경(前程), 계두, 후두 기관지염 및 콜레라에 대한 백신의 사용에 관하여 얘기하겠다.

병아리는 어느 것이든간에 양친이 적절한 시기에 예방접종을 하였다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면역성으로 인해서 최초의 며칠간은 보호를 받는데 이것은 항체가 성계로부터 계란을 통하여 병아리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항체는 2일째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기관지염이나 뉴캐슬의 경우 14~16일째에는 완전히 없어진다. 항체의 감소도는 아주 잘 변하는 것으로서 병아리가 많은 병균에 의해 감염되었을 경우는 6~7일경에도 감염이 된다. 그래서 병이 일찍 생기는 곳에서는 4~7일경에 최초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약간 덜 급한 때에는 7~14일경에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도 종신예방은 될 수 없으니 13~14주령에 재접종을 해줘야 되고 육종을 위해서는 24주령에 뉴캐슬의 항체수준을 부차적으로 높여줄 필요가 있다.

계두의 경우는 부화 후 8~10일경에 접종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재접종을 하여야 한다. 성계안에만 전염하는 경우는 10~12주령시까지 기다렸다가 접종을 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두번 할 필요는 없다. 후두 기관지염과 콜레라는 그 지역내에 병이 왔을 때에 예방접종을 하게 된다. 이상의 모든 예방접종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칙은

① 제1일령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과 같이 너무 서둘러서 접종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반 아들일 수 있는 태세가 갖추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② 생독 예방약의 저장·취급·투여는 제조자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 생독예방약은 감수성이 예민하여 쉽게 불활성이 되며 이렇게 되면 물과 같이 소용이 없다.

③ 백신을 직사광선·상온·살균제에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급수기에는 살균제의 혼적조차

있으면 안 된다.

④ 백신을 물에 타서 줄 때는 백신 투여전에 물을 주면 안 되고 급수 장소가 충분히 여유가 있어서 닭이 동시에 백신을 투여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콕시듐병에 대하여]

이 콕시듐은 아직도 백혈병 다음으로 양계 질병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닭을 평사하는 이상 이 콕시듐을 근절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1) 콕시듐알은 극단적인 환경조건하에서도 저항성이 강하며 특히 휴면기에는 더욱 강하다.

2) 증식율이 높다. 하나의 생산란은 수주내에 수십억이 증식된다.

3) 콕시듐을 갖고 있지 않은 닭을 분간할 수가 없으므로 이 닭을 박멸하는 것은 다른 닭을 박멸하게 되는 수도 있다.

이 병을 퇴치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다. 즉 닭의 전 생애를 통하여 투약으로 방제하는 법(부로일리)과 제한된 범위 안에서 콕시듐을 감염시키고 조심스러운 관리로 면역성을 개발해 나가는 방법이다(60~90주령의 산란계 등). 콕시듐을 치료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의 2가지를 주의하여야 한다.

① 이 병은 같은 계군 속의 모든 닭에게 일제히 감염되는 병은 아니다. 개체에 따라 감염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투약치료를 2~3시간만 계속한다면 치료가 안 되는 닭도 있어서 공연히 치료기간만 연장시키게 되므로 콕시듐의 투약치료는 7일간 계속 투약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7일 중에서 3일간은 설파제를 투약하고 4일간은 암푸롤을 투약하는 것이 좋으며 여름에는 전기간 암푸롤을 쓰는 것이 좋다.

② 약물 치료를 하는 동안이나 치료 후 위장장애를 치료하여야 하는데 사료에 고단위 비타민 A를 어분에 섞어 먹이면 위장치료를 위하여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